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24
----------	------

발의연월일 : 2024. 12. 23.

발 의 자 : 김용만·이인영·강준현
박상혁·천하람·조승래
이정문·염태영·천준호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회에서 요구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증인의 보호 규정과 같이 해당 기관에서 자료가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이유를 적시하여 비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자료를 비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민감도

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의 안전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제출자료의 비공개) 국가기관 등이 제출하는 서류등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출하는 서류 등의 비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제출자료의 비공개) 국</u> <u>가기관 등이 제출하는 서류등</u> <u>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로 비공</u> <u>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u> <u>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료의</u> <u>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계방</u> <u>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u> <u>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u> <u>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u> <u>수 있다.</u>